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제37권 6호(가해) 2017년 1월 1일

[복사]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선생님,
저에게 새 도화지를 주시겠어요?
이것은 망쳤거든요.”

“내 아이야!
이번에는 더 잘 해보렴.”

“주님,
저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시겠습니까?
이번 한 해는 망쳐버렸거든요.”

“내 아이야!
이번에는 더 잘 해보렴.”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 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민수 6, 24~26)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80-2789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7,4358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7,4358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7,4358 Ext.100 Fax: (310)326-4360

2016년 12월31일(토요일 밤 11시)

송년 감사미사

한해의 끝자락에 이르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삶을 위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 **입당송** :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가라 불리리라.

▶ **시작성가** : 전례성가 250

▶ **제1독서** : 요한 1서 2,18-21

▶ **화답송** : ①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②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고,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환호하여라. ③
○그분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민족들을 진리로 다스리신다. ④

▶ **복음환호송** : ①알렐루야.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②

▶ **복음** : 요한 1,1-18

▶ **봉헌 성가** : 전례성가 269

▶ **영성체송** : 하느님은 당신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네.

▶ **성체성가** : 전례성가 306

▶ **파견성가** : 송구 영신가 (Auld Lang Syne - 개사)

1. 시작이요 마침이신 우리 주 하느님,
사랑으로 함께하심 감사하나이다.
어리석은 마음 모아 당신께 드리니,
이 한해의 모든 잘못 용서해 주소서.
2. 백삼위 성당 교우들과 오늘 이 밤에,
함께 하는 미사성제 거룩하여라.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아름다운 공동체,
세상 향해 열린 교회 선포 하게 하소서.
3. 진리 위해 한 마음을 바치신 예수님,
당신 향해 가는 우리 보살피 주소서.
참된 생명 우리 주님 당신을 따르리.
이 땅위에 새 역사를 창조 하옵소서.

▶ **2016년 백삼위 추억의 Review**

2017년 1월1일(주일 오전 11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새해 첫날인 오늘은 성모 마리아께서 하느님을 낳으심을 경축하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천주의 성모'라는 명칭은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고자 성모 마리아께 붙여진 칭호로서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1970년부터 모든교회에서 해마다 1월 1일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경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을 '세계 평화의 날'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생명과 평화를 주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함께 기뻐하며, 우리도 성모님을 본받아 세상 모든 곳에 주님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입당송** : 거룩하신 어머니, 찬미받으소서.
당신은 하늘과 땅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임금님을 낳으셨나이다.

▶ **시작성가** : 전례성가 251

▶ **제1독서** : 민수기 6,22-27

▶ **화답송** : ①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 - 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 - 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②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세상의 거대들을 이끄시니, 거대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③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④

▶ **제2독서** : 갈라티아서 4,4-7

▶ **복음환호송** : ①알렐루야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②

▶ **복음** : 루카 2,16-21

▶ **봉헌 성가** : 전례성가 268

▶ **영성체송** :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또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 **성체성가** : 전례성가 306

▶ **파견성가** : 전례성가 332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요한14,27)

2017년 새해 첫날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한 해 동안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롭게 지난해를 잘 견디었습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꿈과 소망이 하느님의 뜻 안에서 좋은 열매로 맺어지기를 기도합니다.

1976년 교황 바오로 6세께서 매년 1월1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정하신 후, 교회는 해마다 1월1일을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은 '세계 평화의 날'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하느님께 기원하며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마리아께 전구하는 날입니다.

평화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나 분쟁, 억압과 폭력사태 등으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평화는 인간 존엄성의 바탕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인권은 평화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우리 사회는 인간의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가치 전도 현상이 심각하여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더 고통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를 경제논리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유흥과 경제만 좋아지면 모든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집단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사회를 지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대로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채택'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즉 "소유에 대한 존재의 우월성, 사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추구하는 "올바른 가치 기준"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생명의 복음」 98항)

인간은 누구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이가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지혜와

슬기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지만 세상을 흑백으로만 판단할 때 공동체는 화를 부르고 불행해집니다. 사람은 자신만 옳고 정의롭고 다른 이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은 모두 상대적입니다. 하느님만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올해 우리 국민이 모두 다 함께 더 많은 지혜와 슬기를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더 밝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평화는 진리, 정의, 사랑, 자유와 인내 안에서 하느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충분히 존중할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가 구현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염수정안드레아 추기경 / 서울대교구장

이제 더 이상은

불편한 일이 있어도 모르는 척 넘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좋은게 좋아서가 아닙니다. 갑자기 너그러워져서도 아닙니다.
상황을 이해하거나 상대를 인정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 봐야 달라지지 않을거란
체념이 컸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달라지지 않았던 건
그래 봐야 달라지지 않을거란
체념 때문이었다는 걸.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송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재용 안드레아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이민상 요한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1,4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박은혜 클라우디아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동 2,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송년 / 새해 미사 안내

◆ 송년감사 미사 : 31일(토) 밤11시

한 해의 끝자락에 이르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삶을 위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합니다.

◆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 2017년 1월 1일(주일) 오전 9시30분, 11시

교회는 예수 성탄 대축일 전야부터 주님 세례 축일까지를 성탄 시기로 지내고 있다. 특히 예수 성탄 대축일부터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까지는 성탄을 경축하는 '성탄 팔일 축제'를 지내는데,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 축일',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도 지낸다. '주님 공현 대축일' 역시 성탄 시기의 대축일이다. 이 대축일은 처음에 1월 6일이었으나 지금은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에 지내고 있다. '주님 세례 축일'은 주님 공현 대축일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축일이다. 하늘이 열리며 소리가 들려오고 성령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마태 3,16-17 참조). 이 주님 세례 축일을 끝으로 성탄 시기는 막을 내린다.

새해 미사 안내

◆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 :

2017년 1월 1일(주일) 오전 9시30분, 11시

◆ 송년 감사미사 / 성모마리아 대 축일 미사 후 친교 나눔

- 12월 31일 송년 감사 미사 후 : 생강차
- 1일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낮미사후 : 떡국나눔
전신자들에게 사목회에서 떡국을 대접합니다.

◆ 요셉회 2017 설날 대잔치

- 일시: 1월 15일(주일) 11시 미사후 강당
- 일정: 오찬후 민속놀이, 노래자랑, 경품추첨
- 요셉회원(필히 부부동반), 65세이상 요셉회에 관심 있으신 분 환영합니다.
- 문의: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겨울방학

- 개학: 1월 8일(주일)
- 방학 동안 학생미사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 주일학교 신입 복사단 모집

- 자격: 첫 영성체를 한 3학년이상 주일학교학생
- 신청서: 사무실
- 신청마감: 1월 29일
- 문의: 이인석 비오 (213)258-8665

* 새해 연휴 대체휴일로 사무실은 화요일(1월 3일)에 쉽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월 1일: 떡국나누기(토동)
- 1월 8일: 김밥 및 라면 (PV)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강인모 강태홍 국세찬 권오상 김 명 김성현 김영덕 김재희 김정선 김철민 나경흠 박상준 박종열 성낙호 신용섭 이우성 이정미 이정훈 이태욱 장영진 정명모 최길주 최의수 최이원 최재은 한혁수 황철수 송마이클	성전헌금	강순복 강인모 강태홍 국세찬 권오상 김 명 김영덕 김재희 김철민 나경흠 박상준 성낙호 오명섭 이우성 장영진 최길주 최이원 최재은 한혁수 송마이클
합계: \$ 9,360		합계: \$ 2,760	
주일미사헌금: \$3,825. 구유예물: \$2,823. 광고: \$750		감사헌금: \$1,200(이경태, 김병록요셉, Crail-Johnson)	

◆ 청소년 분과 봉사자 모집 공고

백삼위 한인 성당의 주일학교, 한국학교의 발전은 교우 분들의 작은 기도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즐거운 성당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 이메일 : 103skccs@gmail.com

▶ 매주 소식

◆ 송봉모토마스 모어 신부님 성경 학교

- 주제 : "생명의 주님을 찬미 하며" - 요한 복음 5-9장
- 강사 : 송봉모 신부님(예수회 소속)
- 일시 : 1월 20일(금) 7:30pm 미사 후
1월 21일(토) 7:30pm 미사 후
1월 22일(일) 2:00pm
- 대상 : 모든신자와 일반인, 신청비: \$30
- 장소 :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7655 Trask Ave., Westminster, CA 92683
- 사무실 714- 897-6510 x100

◆ 이나시오성인 영신수련 4박5일 침묵 피정

- 주최 : 한인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KCLC)
- 지도 : 이재욱 신부(예수회)
- 일시 : 1/18/2017(수)~1/22/2017(주일)
- 마감 : 1월 18일 2017년
- 장소 : Price of Peace Abbey
650 Benet Hills Rd. Oceanside, CA 92058
- 문의 : 하세실리아(323)578-2230
정요세피나(213)598-6344

◆ 우편 또는 동영상 강의를 이용한 성경공부

- 과정 : 구약과 신약 입문과정(2년)
- 자격 : 고졸 정도의 학력을 가진 신 분
- 접수 : 2016 11월~2017년 1월말
- 시청각 통신 성서 교육원
- 원서 교부처 : 바오로의 딸 서원, 성 바오로 서원
<http://uus.pauline.co.kr> 인터넷 다운로드
- 우편성경공부 : uus@pauline.or.kr
- 이지리닝 성경공부: e-learning@pauline.or.kr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이태옥 아가다 01/9(월)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한창주 요아킴 01/14(토) 오후6시 성당강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01/20(금)오후7시30분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이병찬 안토니오 01/14(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윤화경 바오로&실비아 01/14(토) 오후5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현정 헬레나 01/21(토)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정문주 프란치스카 01/20(금)오후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01/16(월)오전11시 성당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이재용 안드레아 01/31(토)오후6시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김병태 요셉 01/16(월)오후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 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팜프링 현대리조트 01/14(토) 오후2시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남성철 베네딕도 01/13(금)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김관기 라파엘 01/14(토)오후6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김병록 요셉 01/13(금) 오후7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반나영 세실리아 01/10(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제단체 모임	1시
--------	----



2017년 제50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요약)

비폭력, 평화를 위한 정치 방식

새해를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국가와 정부의 수반들, 종교와 사회와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평화를 빕니다. 이번 담화에서 저는 인간관계, 사회관계, 국제관계에서 사랑과 비폭력을 따르도록 요청합니다. 우리는 두 번의 세계 대전으로 초토화되었고 핵전쟁의 위협과 다양한 분쟁들을 겪었으며, 끔찍한 산발적 세계 대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엄청난 고통을 야기합니다. 이 폭력은 복수와 파괴적인 분쟁의 악순환이며 일부의 군벌들만이 이 악순환에서 이득을 얻습니다. 그리고 폭력은 우리의 깨어진 세상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면 강제 이주와 커다란 고통만이 야기되며, 많은 자원이 군사적으로 이용되어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박탈당합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많은 사람들을 육체적 정신적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폭력의 시대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환대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하시며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며 비폭력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비폭력의 길을 가셨으며, 십자가로 평화를 이룩하시고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이는 누구나 자신 안에 있는 폭력을 깨닫고 하느님 자비로 치유받게 됩니다. 비폭력이 굴복, 불관, 수동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하고 일관되게 실천한 비폭력은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 킹 2세의 업적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라이베리아의 리마 보위와 수많은 여성들은 비폭력의 선도자입니다. 먼저 가정의 비폭력의 길을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사랑의 기쁨이 가정에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 사회 전체를 비추고, 책임과 존중과 참된 대화를 바탕으로 군비 축소와 핵무기의 금지와 폐기가 이뤄져야 합니다.

교회는 국제기구의 활동에 함께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차원의 입법 활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교황청 부서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부서는 “이민자들, 궁핍한 이들, 아픈 이들, 배척된 이들, 사회적으로 차별된 이들, 무력 분쟁과 자연재해의 희생자들, 감옥에 갇힌 이들, 실업자들, 모든 형태의 노예살이와 고문의 희생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가톨릭교회가 적극적 창의적 비폭력을 통한 평화 건설의 노력에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와 활동으로 마음과 말과 행위에서 폭력을 몰아내는 사람이 되어 공동의 집을 돌보는 비폭력적 공동체의 건설에 노력을 기울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Francisco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의 운세’ 같은 것을 봅니다. 새해에는 혹시나 좋은 일이 있을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어둠과 같습니다. 현재의 삶이 힘들수록 더 어둡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힘’을 빌려 내일을 살아갈 희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로니아 제국에 멸망되어 포로로 끌려간 시기(BC587-538년경)입니다.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칙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나라도 망하고,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성전도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백성들은 ‘야훼 하느님은 우리를 저리신 것인가?’라는 회의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유배 생활을 하는 것은 하느님을 배반하고 그분이 가르쳐주신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반성을 합니다.

현실의 고통에 파묻혀 하느님을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께 회개하면 그 옛날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조상을 구해주신 것처럼 자신들도 구원해 주시리라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는 하느님이야말로 온 우주의 근원이시며 삶의 원천임을 고백하는 신앙고백인 것입니다.

밝은 곳에서는 빛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둠 속에 있더라도 해와 달을 만드신 하느님께서 다시 빛을 주시어 새벽을 맞게 해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의 신앙고백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창세 1,3)

Q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성경을 찾아보세요.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과 ()을 창조하셨다.” (창세 1,1)

①하늘, 바다 ②우주, 만물 ③빛, 어둠 ④하늘, 땅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사회 교정 사목 위원장

「성경 속 동식물」 01

지혜의 상징인 개미

성경에 나오는 개미는 지혜롭고 부지런한 존재로 비유된다. “너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지혜로워져라. 개미는 우두머리도 없고 감독도 지도자도 없이 여름에 양식을 장만하고 수확 철에 먹이를 모아 들인다.”(잠언 6,6-8)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름 동안 먹이를 장만하는 개미가 인간에게 지혜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했다.

◆ 「성경 속 동식물」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TIMEOUT

Café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310-715-1243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도렌스 세풀베다길 뚜레쥬르
새해 고객 감사 이벤트 1월 한달동안
*조각 케익 2개 사시면 하나공짜
*케익 하나 사시면 \$5 off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MERCEDES - BENZ & BMW 전문 정비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집사-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 파고다 캐더링

각종 밀반찬, 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플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 (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 (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